

제일영도교회 장년주일학교

1월16일(주일) 오후1:30~2:30

# Leadership Conference

## 제2강

### 직분자의 경건과 영성

장봉문 목사

직분자의 경건과 영성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용어 중에 하나는 경건과 영성일 것이다. 그러나 경건과 영성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그 범위도 아주 폭넓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도 발전하기 마련이며,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적, 주석적 해석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경건과 영성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간단히 살펴보고, 실천적 범주에서 경건과 영성에 대해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어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종교적 혹은 관념적 언어에 가깝다. 더욱이 과거에는 경건과 영성이 드러나는 장(場)이 교회나 적어도 신앙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혹은 전인격이 중요시 된다. 요컨대, 신앙과 삶의 일치가 경건과 영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직분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경건과 영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요청되는 경건과 영성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가?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 1.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 1.1 야고보서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 1)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vs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경건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과 그렇지 않은 경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건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에, 혹은 자신이 보기에 아주 경건한 삶을 산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사람의 경건은 정결하지 않고 더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혹은 전통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경건과 영성의 모습에 그대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의 모습이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경건의 모습인가? 이 문제는 뒤에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2)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곧 참 된 경건

우리는 이 지점에 와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예배와 기도생활, 금식하거나 꾸준한 헌금 등 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이 경건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표지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물론,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참 된 의미는,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쏟는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한다. 더욱이 이사야 1장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을 이해하는 참 된 바탕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내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거기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음이 경건의 참 된 표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경건과 영성에 대한 소극적이고 좁은 맥락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3)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 된 경건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적 가치에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그리스도인적 가치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적 가치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명백히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과 같이 반-그리스도인적 가치에 저항한다. 그러나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래서 예리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적 가치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더러 있다. 세상에서의 성공, 자녀 교육의 문제, 불로소득을 위한 투자 등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경계선”에 위치한 여러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따라서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일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곧 참 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과연 나는 비-그리스도인적 가치에도 저항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가? 점검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1.2 디모데후서 3:13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 1) 경건한 삶은 곧 박해받는 삶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되었다는

점이 어찌보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경건한 삶이었다. 자신의 목숨과 안정을 걸고 하나님을 신앙했고, 그걸 위해 무한한 포기과 박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러다가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라는 위치에 오른 이후, 가파른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황금기를 맞이한 시점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출발점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대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표면적 투쟁은 아닐지라도, 개인의 삶 가운데 처절한 저항과 싸움,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회적 실패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저항과 박해보다는 이 사회의 주류로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르려는 추악한 경향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간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간증이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늘 기독교 엘리트주의, 혹은 승리주의에 빠져 있는 간증자들과 마주한다. 하나님을 신앙했더니 받았던 세상의 복,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루어졌던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명예로운 자리, 성공과 맞물려 “나그네의 삶”과 “박해”라는 기본적 가치를 상실하게끔 만들고 있다. 우리는 차라리 박해받은 삶을 간증해야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다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 내 신앙이 그저 복을 받는데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 2.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종종 거룩한 실천이나 영적 습관으로 묘사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도  
 도와 금식, 성경 읽기와 자기 성찰에 전념할 것을 권면한 청교도  
 들의 삶을 들 수 있다. 개혁파의 경건은 성경 중심적이며 선물로서  
 주어진 신앙과 은혜에 뿌리를 둔다. 경건은 개인의 거룩함에서부  
 터 사회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경건의 표현방식을 나  
 타낼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의 열매로서 실천적인 경건의 필요성  
 → 경건생활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sup>1)</sup>

## 2.1 선물로 주어진 신앙과 은혜에 뿌리를 둬

→ 자칫하면 경건은 개인이 노력한 결과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바탕으로 실천적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먼저 주어진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사랑과 감격이 없는 한,  
 모양 뿐인 경건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경건생활, 영성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소유해야 하며, 이 깊이의 여하에 따라 우리 경건의 깊이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 2.2 참된 신앙의 열매로서 실천적 경건

→ 성경은 “열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열매의 본질은 수고로움에  
 있다. 특별히 참된 신앙은 마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히지며, 삶의 결과물로서 우리 눈에 측정되어야 한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기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희생과 포기하는 일이  
 그들의 삶에 꾸준히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경건을 논할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 삶에서

1) 켈리 M. 캐픽, 웨슬리 밴더 렉트, 『개혁신학 용어사전』, 17~18.

피어나고 있는 “신앙적 열매”라고 할 수 있다.

### 3. 직분자의 영성이란?

⇒ 영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 2가지

#### 3.1 사랑(열망)

→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sup>2)</sup>

미국 기독교 철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제임스 K. A. 스미스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국내에서는 『습관이 영성이다』로 번역됨).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의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존 파이퍼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사랑 혹은 열망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관계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민낯”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열망하는 것도 다 각자의 이유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과거의 결핍이 높은 자리를 얻음으로서 해소하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성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빛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는 마음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동력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3.2 닳아감

→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닳아간다.<sup>3)</sup>

---

2) 제임스 K. A. 스미스, 『습관이 영성이다』, 10.

짐 와일더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고 표현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칙이 적용된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서로를 닮아가듯, 그것이 외모든, 행동이든, 성격이든, 성향이든 닮아감의 핵심은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가운데 “본 받음”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한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다. 우리 신앙의 경건과 영성을 위해서 단연 핵심은 하나님을 본 받음, 즉 하나님을 닮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본 받는 일이 단순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닮음과 본 받음은 우리 삶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열매다. 따라서 짐 와일더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실제적 결과물을 따져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적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풍성한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본 받는 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직분자의 영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 4. 우리의 영성 Check List

이 항목에서는 우리의 영성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아래의 항목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경건과 영성이라는 것이 결코 소위 영적 세계에서만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밭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성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영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와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그 근본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 수고로움, 하나님을 본 받음과 닮음을 이뤄내고 있는가? 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3) 짐 와일더, 『달라스 윌라드와의 마지막 영성 수업』, 11.

- 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직분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줄어들거나 없다.
- ②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지로 맡은 일을 감당할 때가 많다.
- ③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
- ④ 회개를 요청하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는 읽거나 듣기에 거부하다.
- ⑤ 말씀이 삶의 중대한 변화를 요청할 때, 회피한다.
- ⑥ 신앙생활 가운데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 ⑦ 급하거나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이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
- ⑧ 자기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인다.
- ⑨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한다.
- ⑩ 일상 속에서 영성훈련을 단순화(예배, 기도로 한정)하거나 포기한다.

⇒ 10개 중에 내가 해당하는 개수는?

⇒ 가장 동의하는 내용은?

⇒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은?

## 5. 영적 성장 및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 5.1 하나님을 “생각만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4)

→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차이를 “관계적 차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분석적으로만 알지 말고, 관계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알고, 함께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달라스 윌라드에 의하면, 관계적 삶은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은 “질문 던지기”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변론이라고 사용된 말은 “야카흐”인데, 이것은 단순히 논쟁하자는 의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통적인 마음을 갖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거기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삶의 기초를 놓게 된다. 우리가 이 초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 5.2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우기

→ 우리 삶에 실제적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당장의 승진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차근차근 목표에 따라 삶을 경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삶의 목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신앙 훈련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뭔가 하지 않는 영성 훈련이 있고, 뭔가를

4) 짐 와이더, 『달라스 윌라드와의 마지막 영성 수업』, 36~38.

하는 영성 훈련이 있다.

### <뭔가 하지 않는 훈련>

고독(혼자 있기) / 침묵 / 금식 / 희생

### <뭔가 하는 훈련>

성경공부 / 예배 / 기도 / 교제 / 고백 / 축하

결국 이런 의도적 노력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의존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표”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5.3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sup>5)</sup>

→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삶은 힘든 것이다.
- ②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 ③ 내 삶에 찾아오는 슬픔과 상실을 껴안아야 한다.
- ④ 소유욕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바르다.
- ⑤ 당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경건과 영성과는 멀어지기 시작한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신뢰를 반드시 수반한다. 내 삶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때로 슬픔과 비극, 어려움과 고난이 밀어 닥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5)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90.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고 내려 놓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경건과 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 5.4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과 함께 성장하기

→ 영성과 경건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부름 받지만, 공동체로도 함께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함께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삶의 목표 까지도 함께 공유하게 된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을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 살아가려는 우리의 참된 욕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참된 삶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의 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영적 허세가 없는 진솔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며, 서로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줄 영적 책임을 가진다.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영성을 벗어던지고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 6.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명인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영성수업”에서

영성 훈련에 첫 걸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 없음, 혹은 가장자리로 밀려난 하나님을 마주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고 “가까이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서려는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맺히지게 될 것이다. 2022년을 새로이 맞이하면서 직분자로 부름 받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경건과 영성에 있어서 진실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 Memo